

북한 산림 정책 수단으로서 로동신문 'Rho Dong Shin Mun' as Forest Policy Instrument of DPRK

송민경^{1*}, 박미선², 윤여창¹

(¹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²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황폐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림 계획을 추진해왔다. 7개년 계획(1987-1993년)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선별하여 심도록 하였고, 2000년에는 '산림조성 10년 계획기간(2001-2010)'을 설정하여 속성수 및 유용수종 식수를 강조하고 묘목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1996년에는 '국토 환경보호절(10월 23일)'을 제정하고 매년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설정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커뮤니케이션에서 미디어의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북한에서 산림 관련 이슈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의 경우,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미디어는 북한 정부의 관리 및 조정의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미디어 분석은 북한 산림정책 선전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북한 미디어 분석을 위해 북한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선택하였다. '고난의 행군'이라 일컬어지는 1990년대 경제난을 포함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기사 중 표제에 '산림'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추출하여, 총 420개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2003년까지의 기사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로동신문연구팀이 2006년에 발간한 로동신문색인을 원용하여 수집하였고, 2004년 이후 기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로동신문의 특성상 기사 내용이 갖는 노동당 의도의 경중이 기사 형식이나 편집양식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기사 유형(사·논설/보도기사 및 경험기사/교양적 기사)과 편집 유형(1면에 실린 기사의 수/ 특집기사로 편집된 기사의 수/ 신문면의 상단 배치 기사의 수)을 코딩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1996년, 1999년, 2008년에 산림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1995년, 1996년, 1999년, 2008년에 많은 산림 관련 내용이 특집 기사로 다루어졌다. 이는 각각 1995년 대홍수, 1997년 가뭄, 2007년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산림관련 이슈가 부각된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에는 나무심기에 관한 기사가, 1996에는 국토관리사업, 가을철나무심기,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대한 특집기사가 보도되었다. 1999년에 산림조성과 더불어 양묘장 건설 및 확장에 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2008년에 수림화·원림화 방침, 산림보호대책, 산불막이대책 등에 관한 기사가 주로 보도되었다. 산림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산림조성의 선전과 동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산림의 황폐화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사, 남한 및 국제협력기구로부터 받은 산림협력사업에 대한 기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홍보하고, 조림 및 보호사업에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미디어는 산림 정보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로동신문은 일방적이지만 북한 정부가 주민에게 산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북한 사회의 산림담론 형

성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관련 보도 기사의 수와 유형에 관한 빈도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향후 산림관련 기사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양적, 질적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